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 영국 영국왕립학술원, 데이터로 남성 편중 세상을 보여준 페미니즘 도서 'Invisible Women'에 과학도서상 수여<sup>1)</sup>

영국 여성 인권활동가이자 작가인 케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Caroline Criado Perez)가 쓴 책이 굵직한 상 두 개를 휩쓸며, 2019년을 대표하는 페미니즘 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페레스의 두 번째 책 '보이지 않는 여성들, 남성 중심 세상을 편중된 데이터로 고발하다(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이하 Invisible Women)'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설계됐는지 증명한다. 남성용 충격 흡수 인형만 사용해 제작한 차량용 에어백, 백인 남성이 기준인 암 연구 등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서 여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고발한다.

'Invisible Women'이 다른 페미니즘 도서보다 돋보이는 이유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을 데이터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학 연구에서도 여성은 종종 배제된다. 영국에서 매년 8천여 명이 업무로 인한 암 진단을 받지만 대부분 연구가 남성 위주로 이뤄진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대부분 암 연구가 몸무게 70kg의 25~30세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여성에게 적용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남녀 화장실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2.3배 더 길다는 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점, 가임기 여성이 생리 기간에는 탐폰이나 생리대를 교체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임신 기간엔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 참고문헌 •

Caroline Criado Perez (2019.03.07.),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Penguin Books.

The Guardian (2019.02.23.), "The deadly truth about a world built for men – from stab vests to car crashes", url: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9/feb/23/truth-world-built-for-men-car-crashes> (검색일: 2019.12.23.)

Financial Times (2019.12.04.), "Exposé of data gender bias wins FT/McKinsey book prize", url: <https://www.ft.com/content/6cc894a0-15e9-11ea-8d73-6303645ac406?fbclid=IwAR37kPkVYz7xl8eaM2w8vdZpOWz54ODWPvCcBkiF0wTNUWDCrAOgvM-7VPo> (검색일: 2019.12.23.).

## 영국 여성건강 전문가들, “집 근처 여성 전용 원스톱 클리닉 필요” 주장

영국의 여성건강 전문가 집단은 시내 중심가에 피임과 낙태, 여성 질환 검사, 폐경 상담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클리닉(one-stop clinic)’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도 의료진 상담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영국 여성 의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은 2019년 12월 2일 영국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Better For Women’을 발표했다. 90년 역사를 지닌 여성건강 연구 단체인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이 보고서를 통해 상담 종류에 따라 여러 병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현 NHS(국민건강서비스)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친화적인 서비스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 핵심이 바로 ‘원스톱 클리닉’이다. 정부가 직장과 육아 등으로 바쁜 여성들이 ‘병원 투어’를 하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집과 가까운 클리닉 한 곳에서 피임과 낙태, 여성 질환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립 산부인과 전문대학 회장인 레슬리 레이건은 “자궁경부암 검사(smear test), 피임, 성병 검사(STI check)는 의사 한 명이 15분이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의료진이 이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현 의료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성들이 피임과 낙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

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은 여성이 원할 때 하는 것’이라는 왕립산부인과 전문대학의 원칙 때문이다. 이 단체는 영국 전체 임신의 45% 정도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고 추산한다. 그 방법으로, 낙태법(Abortion Act 1967)을 재검토해 임신 중단 약물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집 외에 다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약물이다. 낙태법에 따르면, 영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은 ‘집(home)’에서만 복용할 수 있는데, 집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여성들이 주소지로 등록된 집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구 사후 피임약을 의료진과 상담하지 않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등장했다. 보고서는 “경구 사후 피임약(oral contraceptive pill, OCP)은 전 세계적으로 60년 넘게 가장 많이 연구된 약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처방전이 있어야만 피임약을 얻을 수 있는 현 제도가 피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참고문헌 •

- 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2019.12.02.), “Better for Women (full report)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girls and women”, url: <https://www.rcog.org.uk/globalassets/documents/news/campaigns-and-opinions/better-for-women/better-for-women-full-report.pdf> (검색일: 2019.12.12.).
- The Gaurdian(2019.12.02.), “One-stop shops needed for women’s health services”, url: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dec/02/one-stop-shops-needed-for-womens-health-services> (검색일: 2019.12.12.).

## 영국 법조 · 정치 · 경제계, 여전히 남성 편중 현상

영국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는 2020년 1월 13일 ‘2020년 성별 권력 지수(2020 Sex and Power Index)’를 통해 정치, 법조, 경제 등 사회 각 분야 주요 직군의 성별 분포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조인, 정치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업의 경우는 남성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요 직군에 종사하는 흑인이나 아시아인 등 소수 인종 출신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법관 12명 중 단 2명(17%)이 여성이며, 올해 74세인 레이디 헤일(Lady Hale) 대법원장이 올 1월 퇴임예정이어서 전체 여성 대법관 숫자는 1명으로 줄어든다. 영국 항소

법원과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고등법원의 여성 판사 비율은 각각 23%, 27%에 불과하다. 영국 주가지수 FTSE에 상장된 100대 기업의 여성 최고 경영자(CEO)는 6명에 불과했고, 이들 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도 32%로 낮은 상황이다. 정치계에서 하원(House of Commons) 의원 650명 중 여성 의원 비율은 34% (220명)이다. 정당별로는 노동당(Labour)은 202명 중 104명(51%)으로 남성을 앞지른 상태이나, 보수당(Conservative)은 365명 중 87명(24%),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은 11명 중 7명(64%),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48석 중 16석(33%)을 차지했다. 전체 의원 중 흑인과 같은 소수 인종 여성 의원 비율은 현저하게 낮는데, 전체 여성 의원 220명 중 37명(17%)이며, 이중 대다수인 29명이 노동당 소속이다.

포셋 소사이어티 샘 스메터스 대표는 “이 데이터는 영국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영국 여성들의 재능과 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참고문헌 •

- Fawcett Society(2020.1.13.), “2020 Sex and Power Index reveals men continue to dominate every sector of UK public life, politics and business Equality “still generations away”,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fawcetts-updated-2020-sex-and-power-index-reveals-men-continue-to-dominate-every-sector-of-uk-public-life-politics-and-business> (검색일: 2020.1.25.).
- Fawcett Society(2020.1.13.), “2020 Sex and Power Index”, <https://www.fawcettsociety.org.uk/Handlers/Download.ashx?IDMF=bdb30c2d-7b79-4b02-af09-72d0e25545b5> (검색일: 2020.1.25.).
- CNBC(2019.11.13.), “Britain’s top 100 companies have just 6 female CEO’s, study finds”,  
<https://www.cnn.com/2019/11/13/britains-top-100-companies-have-just-6-female-ceos-study-finds.html> (검색일: 2020.1.25.).

## 아일랜드, 여성 교수 전용 임용제 실시로 학계 성 불균형 감소 기대

아일랜드 대학은 고등교육에서의 성 격차 감소정책 중 하나인 여성교수 전용 임용제(women-only professorial positions)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3년간 총 45개의 자리가 여성에게 할당될 예정이다.

고등교육청(Higher Education Authority, HEA)에 따르면, 아직도 아일랜드 대학 내

여성 교수(professor) 비율은 2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공계분야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한 예로 아일랜드 공대 내 조교수(senior lecturer positions) 2/3가량이 남성이라고 한다. 2018년 아일랜드 정부 내 설립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Gender Equality Taskforce)는 지금 이 속도라면 여성 교수 비율이 40%에 이르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양성평등 태스크포스 고등교육 행동계획(Gender Equality Taskforce Action Plan for Higher Education 2018-2020)을 통해 이번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Irish Examiner(2020.01.03.), "Women-only professorships to be in place at universities by next September", url: <https://www.irishexaminer.com/breakingnews/ireland/women-only-professorships-to-be-in-place-at-universities-by-next-september-973376.html> (검색일: 2020.01.08.).

The Telegraph(2020.01.03.), "Ireland approves 20 female-only professorships to tackle academic gender imbalance," url: <https://www.telegraph.co.uk/news/2020/01/03/ireland-approves-20-female-only-professorships-tackle-academic/> (검색일: 2020.01.08.).

## 스웨덴 우메오(Umeå) 시, 성평등 도시 투어 '젠더 랜드스케이프'의 성공 사례<sup>2)</sup>

스웨덴 제3의 도시 우메오(Umeå)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도시에서의 성주류화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자 2009년 젠더 랜드스케이프(Gendered Landscape) 제도를 도입했다. 전형적인 도시 투어 프로그램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젠더 관점에서 우메오를 소개하는 젠더 랜드스케이프는 유럽 도시 개발 네트워크인 URBACT에 의해 2017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

우메오의 성인지 통계를 25가지 주제로 분류한 뒤, 시티투어 버스가 특정 장소나 공간을 방문할 경우 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했다<sup>1)</sup>. 예를 들면, 시티 투어 버스가 학교 앞을 지나면 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공원을 지날 때면 공공장소에서의 안정감과 안전 문제, 병원 근처에서는 성별로 분리된 노동 시장 결과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는 VR을 사용하여 가상 공간 속에서의 젠더 랜드스케이프가 운영 중이다. 젠더 랜드스케이프는 2016년부터 인터

2) 작성: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넷을 통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우메오는 새롭게 프리존 파크(Freezone Park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리존 파크는 기존 도시 공원을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있었던 아크토버(Archtober) 주간에 민주적 관점의 스웨덴 건축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프리존 파크 조성을 위해 우메오시는 먼저 공원 인근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공원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들은 거의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공원을 재설계하는 것이 프리존 파크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프리존 파크는 지난 2016년 오픈과 동시에 성황을 이루고 있다.

#### • 참고문헌 •

- Linda. S.(2016), "Imagining the ideal city, planning the gender-equal city in Umeå, Sweden", Gender, Place & Culture, 23(12).
- Umeå, "Umeå - a progressive and gender equal city", url: <http://innovationbyumea.se/all-articles/a-progressive-and-gender-equal-city> (검색일: 2019.12.20.).
- Observatory, "Umeå - a model town for Gender Equality", url: <https://charter-equality.eu/exemple-de-bonnes-pratiques/umea-a-model-town-for-gender-equality.html> (검색일: 2019.12.22.).
- Gendered Landscape, url: <https://genderedlandscape.umea.se/> (검색일: 2019.12.22.)
- UMEÅ KOMMUN, url: <https://umea.se/umeakommun/kommunochpolitik/manskligarattigheter/jamstalldhet.4.118a77010256f6c90180005994.html> (검색일: 2019.12.27.).
- URBACT, url: <https://urbact.eu/all-networks> (검색일: 2019.12.22.).

## 스웨덴 영화협회, 영화분야 성평등 달성을 위한 페미니스트 등급 시스템 운영 중

스웨덴 최대의 영화관련 단체인 '스웨덴 영화협회(약칭 SFI)'는 2013년부터 주제, 배우 역할, 스텝 비중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성평등 달성 목적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등급시스템(Feminism rating for films, 이하 등급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등급제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 혐오, 영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여성 나체와 섹스 장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욕설 등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등급을 매긴다. 이 시스템은 벡델 테스트(Bechdel test)에 기반하고 있다. SFI는 이러한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에 대해 성평등성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A등급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스웨덴 모든 영화에는 연령 등급과 함께 페미니스트 등급도 함께 표시되어 배포되고 있다.

도입된 등급제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최초 시행된 2013년에는 제작 영화 중 약 34%가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2018년에는 약 65%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영화 제작자들이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관련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FI 회장인 안나 서너 (Anna Serner)는 2018년 영화인을 위한 토크쇼에서 “영화 속에서 여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된다면 실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등급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그리고 영화계에서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 참고문헌 •

- 홍세영(2018), “스웨덴 여성영화인의 양성평등 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35
- Sweden Launched A Feminist Movie Rating(2013.11.06.), url: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alisonvingiano/sweden-launches-a-feminist-movie-rating> (검색일: 2020.01.15.).
- A&E(2018.03.27.), “Swedish film CEO Anna Serner maps out future of women in film at BAMPFA talk”, url: <https://www.dailycal.org/2018/03/27/anna-serner-bampfa-talk/> (검색일: 2020.1.15.).
- THE LOCAL(2013.11.14.), “The woman who wants Sweden’s gender rating at a cinema near you”, url: <https://www.thelocal.se/20131114/lina-thomsgard-at-equalister-wants-swedens-gender-bias-rating-at-a-cinema-near-you> (검색일: 2020.1.15.).

## 핀란드, 성역할 구분과 남성중심 조직문화로 남성의 육아참여 저조<sup>3)</sup>

핀란드의 사회보험 전담기관 Kela(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의 발표에 따르면 법적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남성은 9%로(2016년 기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핀란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54일이 주어지는데 69%의 남성이 사용했다고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58일이 주어지며, 부부 또는 커플끼리 서로 협의하여 겹치지 않는 기간에 번갈아 사용해야 하고, Kela에서 육아수당(parental allowance)을 받는다. 2018년의 경우, 핀란드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 36일에 그친

3) 작성: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인 여성이 직장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가량에 해당하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는데, 남성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몇 년간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국립보건복지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THL) 소속 요아나 나르비(Johanna Närvi) 연구원은 핀란드 내 저조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의 원인으로 성 역할(gender role), 즉 성별 역할 분담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여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육아를 맡고 그것이 쪽 이어지면서 결국 여성은 경력에 단절되고 집에서 계속 육아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남성들도 있다. 핀란드 정유기업 네스테(Neste)의 부사장인 하넬레 야코수-얀손(Hannele Jakosuo-Jansson)은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직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이행 정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핀란드 기반 글로벌 기업인 코네(Kone)에서는 그동안 약 200여명의 남성 직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인사팀 디렉터는 최근 몇 년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남성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 • 참고문헌 •

- Kela(2019), "Parental allowances", url: <https://www.kela.fi/web/en/parental-allowances> (검색일: 2019.12.8.).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of Finland(2019),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url: <https://tem.fi/en/maternity-paternity-and-parental-leave> (검색일: 2019.12.8.).
- Yle(2019.11.10.), "Report: Dads still slow to take advantage of paternity leave", url: [https://yle.fi/uutiset/osasto/news/report\\_dads\\_still\\_slow\\_to\\_take\\_advantage\\_of\\_paternity\\_leave/11061403](https://yle.fi/uutiset/osasto/news/report_dads_still_slow_to_take_advantage_of_paternity_leave/11061403) (검색일: 2019.12.8.).

## 핀란드,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 탄생과 새로운 내각 내 여성 진출 두각

핀란드에서는 2019년 12월 초, 현재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산나 마린(Sanna Marin) 의원이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총 200석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찬성 99표, 반대 70표를 기록했다.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핀란드는 유럽 내 최초로 1906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이어 1907년 의회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

이기도 하다. 산나 마린 총리는 올해 34세로,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셈이다.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27세에 고향 탐페레(Tampere)에서 시의회 대표가 되었다. 2015년에 사회민주당 의원으로 의회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는 교통-커뮤니케이션 장관(Minister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마린 총리는 임명 직후 내각 인사를 발표했는데, 19개 부처 중 12개 부처 장관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다. 산나 마린 총리는 젊은 세대답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복지 및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투르쿠 대학(Turku University) 산하 의회연구센터(Centre for Parliamentary Studies) 소속 정치학자인 예니 카리마키(Jenni Karimäki)는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새 정부 구성에 대해 “이전에 비해 의회 내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지난 4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했고 이번 새 정부의 모습이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보다 많은 여성의 의회 진출 및 주요 직책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총리가 탄생하고 내각 내 주요 보직에 대다수가 여성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핀란드 사회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슈는 이와 또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총리 및 장관만으로 여성의 민간기업 또는 공직 내 의사 결정직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산나 마린 총리와 여성 장관들이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련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 AP(2019.12.10.), “Finland gets world’s youngest prime minister, a woman age 34,” <https://apnews.com/e2f28f889333a73a06b54bfa3e2e81e3> (검색일: 2019.12.23.).
- BBC(2019.12.09.), “Finnish minister Sanna Marin, 34, to become world’s youngest PM,”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0709422> (검색일: 2019.12.23.).
- Euronews (2019.12.09.), “Finland picks world’s youngest PM to head women-led cabinet,” <https://www.euronews.com/2019/12/09/finland-picks-worlds-youngest-pm-to-head-women-led-cabinet> (검색일: 2019.12.23.).
- Yle news(2019.12.11.), “Familiar faces in Finland’s new government,” [https://yle.fi/uutiset/osasto/news/familiar\\_faces\\_in\\_finlands\\_new\\_government/11111804](https://yle.fi/uutiset/osasto/news/familiar_faces_in_finlands_new_government/11111804) (검색일: 2019.12.23.).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20년 디지털 여성 아카이브 및 청소년·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2020년 집중적으로 지원할 프로젝트 중 일부로 디지털 독일 여성아카이브 및 폭력피해 청소년·남성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독일 여성아카이브(Digitale Deutsche Frauenarchiv, 이하 DDF)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185만 유로(한화 약 23억 7,260만 원)를 지원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장관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에 독일 여성운동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보여주는 아카이브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과 남성을 위한 상담 지원 확대이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2년 2월부터 중순까지 남성연방포럼(Bundesforum Männer)의 ‘성평등 정책 내 남성 네트워킹 및 상담 프로젝트’에 115만 유로(한화 약 14억 7,486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목표는 공공 및 개인 공간에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및 남성을 위한 상담 질을 높이고 전국 전문 기관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위해서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폭력 피해 남성과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보호 거주 시설이 총 17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은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바이센베르크, 슈트트가르트 등 다양하다. 이중 드레스덴 시설이 2016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나머지 보호 거주 시설은 대개 2018년과 2019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쾰른과 뒤셀도르프에 보호 거주 시설이 추가 마련될 예정이다.

### •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Gleichstellungsjahr 2020: Partnerschaftlich für gerechte Chancen von Frauen und Männer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leichstellungsjahr-2020—partnerschaftlich—fuer—gerechte—chancen—von—frauen—und—maennern—/144542> (검색일: 2020.2.26.).

Männnergewaltschutz(2020), [www.maennergewaltschutz.de](http://www.maennergewaltschutz.de) (검색일: 2020.2.14.).

Bundesforum Männer e.V.(2020), [www.bundesforum-maenner.de](http://www.bundesforum-maenner.de) (검색일: 2020.2.14.).

## 독일 독일정부, 혐오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발표에도 젠더관점 미비 비난 이어져<sup>4)</sup>

최근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의는 지난 10월 독일 작센안할트주에 위치한 도시 '할레'에서 벌어진 인종차별·안티 페미니즘 테러와 녹색당 여성 정치인인 레나테 쿨나스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벌어진 혐오 표현에서 비롯됐다.

레나테 쿨나스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와 심한 욕설, 성폭력과 성희롱 댓글로 모욕을 당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그러나 레나테 의원에게 혐오 표현 글을 두고 베를린 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와 혐오 범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정치계와 법조계에서는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해 젠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혐오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무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모여 우익극단주의와 혐오 범죄에 맞서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채택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인터넷상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에 혐오표현 가해자 정보 요청 권한 부여 ▲폭력 및 혐오 범죄와 관련된 형법 조항 보완 및 확장 ▲우익 극단주의, 반(反)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와 관련한 예방 프로그램 확대 ▲무기 및 폭발물에 대한 법안 및 규정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성적 모욕과 강간 위협 등 인터넷의 혐오표현이 특히 여성을 겨냥해왔으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혐오를 양산해내고 이용자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독일 연방정부의 혐오 표현에 대한 조치가 여성 혐오 범죄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 rehm Verlag(2019.11.05.), "Hate Speech und digitale Gewalt gegen Frauen", url: <https://www.rehm-verlag.de/Gleichstellungsrecht/aktuelle-beitraege-zum-gleichstellungsrecht/hate-speech-und-digitale-gewalt-gegen-frauen/> (검색일: 2019.12.26.).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10.30.), "Gegen Rechtsextremismus und Hasskriminalität", url: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egen-rechtsextremismus-und-hasskriminalitaet/140518> (검색일: 2019.12.26.).
- Spiegel Politik(2019.09.27.), "Anzeige gegen Berliner Richter wegen umstrittenen Künstler-Urteils", url: <https://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renate-kuenast-beleidigungen-auf-facebook-kanzlei-geht-gegen-berliner-landgericht-vor-a-1288961.html> (검색일: 2019.12.26.).

4) 작성: 채혜원 독일통신원

## 캐나다 여성부, 법관 자격 요건으로 성폭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법안 발의

2020년 2월 6일 캐나다 여성부(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는 고등 법원 판사의 자격요건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training on sexual assault myths and law)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 Bill C-5를 발표했다. 여당인 자유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 고등법원 판사 후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2월 6일 마리암 몬세프(Maryam Monsef) 여성부 장관은 'C-5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앞으로 더 많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앞으로 나설 것이며 재판 동안 그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C-5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캐나다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변호사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인데, 이 법안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사 임명 자격 요건에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 이수를 포함한다. 또한 정부안은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들에게 성폭력의 사회적 맥락과 관련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게 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하급법원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캐나다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 연방 사법부 기관 만이 사법적 교육을 주관할 수 있고 입법부가 이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C-5가 현존 교육 프로그램들과 차별되는 점은 입법부가 교육 이수를 자격 판사 임용 자격 요건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제까지는 자발적으로 혹은 권유에 그쳤던 교육이 사실상 법률로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캐나다에서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매우 낮으며, 신고율이 저조한 큰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법관들의 젠더감수성 결여를 들고 있다. 즉, 현재 사법부가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증언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되려 심화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치욕스러운 재판 과정을 버텨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종종 아예 증언에 불리지도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밀턴 지역 성폭력 센터(Sexual Assault Centre of the Hamilton Area)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천 건 중 세 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성인보다 더 많은 재판을 견디어야 하며 이때 법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욱 절실하다. 여성부는 C-5의 통과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속히 교육 내용 꾸릴 것이라 밝혔다.

• 참고문헌 •

- McLeans(2020.02.06.), "Bill C-5: Should the Canadian government train its judges?", Bill C-5: Should the Canadian government train its judges?", <https://www.macleans.ca/opinion/bill-c-5-should-the-canadian-government-train-its-judges/> (검색일: 2020.2.19.).
- Global News(2020.02.07.), "What Bill C-5 could mean for survivors of sexual assault", <https://globalnews.ca/news/6517266/bill-c-5-sexual-assault-survivors/> (검색일: 2020.2.19.).
- The Guardian(2017.03.09.), "Canada judge resigns over 'keep your knees together' comment in rape tria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mar/10/canada-judge-resigns-keep-your-knees-together-comment-rape-trial> (검색일: 2020.2.19.).

## 캐나다 사회의 젠더 포용성 강화와 여성권리 침해 주장의 출동

캐나다에서 2019년을 정리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캐나다 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젠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전반적인 방향은 젠더 포용(Gender inclusivity)이라는 큰 슬로건으로 압축될 수 있다. 캐나다 젠더 정책에서의 젠더 포용성이란 단순히 성소수자의 권리 향상 이상의 함의를 가지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나누어 일상 공간과 정책을 조직하는 것을 폭력적이라 인식하고 다양한 젠더들을 사회정책 안에 포섭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캐나다 젠더 정책에서 포용성이 확대된 기념비적 사건은 2017년 Bill C-16이 입안된 것이다. 이 법안은 첫째, 나이, 인종, 성, 종교, 장애에 덧붙여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해당 법안은 캐나다 형법에 혐오 발언(hate speech), 집단 학살이나 대중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조장하는 연설(advocating genocide and the public incitement of hatred)을 규정하는데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포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혐오 범죄를 의율하는 근거로서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정 당시 이 법안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젠더를 포용하는 진보적인 법안으로 평가되었으나, 형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차별이 지나치게 폭넓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또한 있었다.

이런 변화들이 대중의 젠더 관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반발 또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컨대 2018년 토론토에서 여성 전용 중독 재활 시설(the Jean Tweed Centre)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된 여성이 인권 재활 시설을

인권위에 제소한 사건, 같은 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남성 성기를 보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민자 여성이 운영하는 16개의 왁싱샵을 인권위에 무더기 제소한 사건, 2019년 3월 역시 여성 전용 시설인 밴쿠버 성폭행 피해자 쉼터 (Vancouver Rape Relief and Women's Shelter)가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었던 사건 등의 사례발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캐나다 페미니스트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힘겨운 싸움을 통해 이룩한 여성의 권리, 여성들만의 공간을 젠더 포용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침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1월 몇몇 캐나다 페미니스트들은 캐나다 여성의 성 기반 권리(Canadian Women's Sex-Based Rights)라는 연대를 조직해 "여성은 생물학적 실재이지 단지 여성이라는 느낌이 아니다(Woman: fact, not feeling)"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Bill C-16 폐기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들만의 공간을 보존해야 하며 C-16은 일종의 국가 주도 가스라이팅(state-sanctioned gaslighting)으로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용, 무기처럼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 HuffPost, Kingston(2020.1.4.), "Ont.'s First Twins Of 2020 Are Being Raised Gender Neutral: More and more parents are choosing to raise their kids outside of the gender binary", url: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raising-kids-gender-neutral\\_ca\\_5e0f788fe4b0843d3611bf02](https://www.huffingtonpost.ca/entry/raising-kids-gender-neutral_ca_5e0f788fe4b0843d3611bf02) (검색일 : 2020.1.10.).
- CBC(2018.11.8.), "CANADA'S GENDER IDENTITY RIGHTS BILL C-16 EXPLAINED", [https://www.cbc.ca/cbcdocspov/m\\_features/canadas-gender-identity-rights-bill-c-16-explained](https://www.cbc.ca/cbcdocspov/m_features/canadas-gender-identity-rights-bill-c-16-explained) (검색일: 2020.1.10.).
- CBC(2019.11.23.), "Gender-neutral washrooms planned for city-owned buildings in Charlottetown", url: <https://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pei-gender-neutral-washrooms-city-hall-1.5371141> (검색일: 2020.1.10.)

## 캐나다, 양심적 진료 거부 보호 법안 논쟁<sup>5)</sup>

캐나다 알버타(Alberta) 주에서 양심의 권리 보호법(Conscience Right Protection Act, Bill 207)이 지난 11월 발의된 이후 캐나다 전역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가 요구하는 치료를 의사 자신의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5)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심의 권리 보호법은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기관이 의료진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관련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알버타주의 인권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양심을 고용상의 차별 근거 금지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되어 두 가지 젠더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첫째, 이 법안이 여성의 낙태에 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 법안이 윌리엄 의원과 같은 낙태 반대주의자들에게 낙태시술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인(trans people)에 대한 것으로 이 법안이 트랜스인들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는 트랜스인들에 대한 젠더 확증 수술(gender affirming surgery)을 공공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면 1차 의료시설에서부터 트랜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신념을 가진 의료인들이 전문의에게 트랜스인들을 추천해 주지 않거나, 혹은 진단을 해 주지 않을 의사에게 연결해 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트랜스인들의 장기간 호르몬 요법에의 접근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에 발의된 후 상임위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차 심사에서 부결되어 알버타 주의회 본안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과 보수 종교계 등의 지지를 얻은 윌리엄 의원은 해당 법안의 상정을 새해에 다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언론은 트뤼도 수상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행보와 시민사회 및 의료계의 반대, 알버타 주지사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 • 참고문헌 •

- anada(2019.12.16.), “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Canada Mandate Letter”,  
url : <https://pm.gc.ca/en/mandate-letters/minister-justice-and-attorney-general-canada-mandate-letter> (검색일: 2019.12.20.).
- CBC(2019.11.22.), “Controversial conscience rights bill for Alberta physicians voted down”,  
url :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conscience-rights-alberta-doctors-1.5369332> (검색일: 2019.12.20.).
- Grandin Media(2019.12.03.), “Debate over conscience rights hasn’t cooled off in Alberta”,  
url : <https://grandinmedia.ca/debate-over-conscience-rights-hasnt-cooled-off-in-alberta/> (검색일: 2019.12.20.).



## 캐나다 퀘벡주,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성노동의 비범죄화 요구 확산

2020년 1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성노동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남성에게 의해 살해당한 사건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한 여성을 살인한 후 수감 중이던 유스타치오 갈레세(Eustachio Gallese)는 최근 캐나다 가석방위원회(The Parole Board of Canada)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고 퀘벡의 한 호텔로 22세의 성노동자를 불러들여 살해한 후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신민주당의 로렐 콜린스(Laurel Collins)는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이 성노동자(Sex worker)들을 더욱 위험으로 내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신민당 의원들은 퀘벡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를 압박하여 성매매 규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은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캐나다에서 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성 구매와 성매매 광고 행위를 불법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캐나다의 성노동자들은 이 법률 자체가(Bill C-36) ‘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그들의 노동환경을 범죄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음지로 내몰아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지난해 캐나다 총선 시즌 동안 성 건강과 권리 행동 연대(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and Rights)는 새 정부가 성노동을 비범죄화(decriminalize sex work)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통해서만이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담보할 수 있고 고립되지 않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트뤼도 총리를 포함한 자유당 의원들은 C-36의 입안에 반대하는 표를 행사하였고 이후에도 해당 법안에 비판을 해왔으나 집권 후에는 뚜렷한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집권 후 달라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9년 캐나다 총선에서 녹색당 만이 성매매 합법화 이슈를 공약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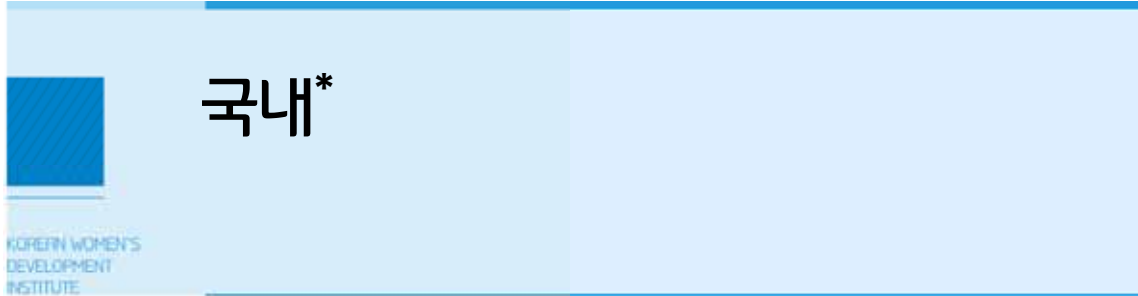
한편 합법화 요구가 거세지는 데는 지난 6월 뉴욕주의 성매매 합법화 법안 상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관련 과거 전과까지 삭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몇몇 미국의 대권주자들까지 지지를 보내면서 캐나다의 성매매 합법화 운동 또한 탄력을 받았다. 캐나다 내부에서의 압력도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관심 속에 국책 사업으로 시행된 살해되거나 실종된 원주민 여성 프로젝트(the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또한 최종 정책제언의 일부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여성 등 소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NBC News(2019.06.10.), New York state lawmakers introduce bill to decriminalize sex work, url: <https://www.nbcnews.com/news/us-news/new-york-state-lawmakers-introduce-bill-decriminalize-sex-work-n1015891> (검색일: 2020.2.9.).

Global News (2019.10.03.), Demands grow for Canada to decriminalize sex work after the election, <https://globalnews.ca/news/5970549/canada-sex-work-decriminalization/> (검색일: 2020.2.9.).

HuffPost(2020.02.04), Tory MP Arnold Viersen Apologizes For Asking NDP MP If She 'Considered' Sex Work,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arnold-viersen-laurie-collins\\_ca\\_5e39d8dfc5b6f083412070c4](https://www.huffingtonpost.ca/entry/arnold-viersen-laurie-collins_ca_5e39d8dfc5b6f083412070c4) (검색일: 2020.2.9.).



## [여성가족부]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

- 여성가족부는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발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04.]

!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성·세대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 반영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세대평등 및 다양한 가족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무원단 대상 역량진단 시범 운영</li> <li>· 성별영향평가 확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li> <li>· 교육·고용 등 분야별 성평등 정책 이행 및 성과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확대 : ('19) 35개소 → ('20) 60개소</li> <li>· 30~40대 경력자 특화 직업훈련 신설</li> <li>· AI·VR 기반 모의면접 서비스, 온라인 직업훈련과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학교·지역에서의 성평등 실천</li> <li>· '세상모든가족함께' 인식 개선 홍보</li> <li>·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개발</li> <li>· 가족범위 확장 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li> </ul>

! 여성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여성폭력 안전 총괄 기능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li> <li>·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운영</li> <li>· 폭력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강화</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확대(4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을 24시간 검색</li> <li>·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 도입</li> <li>·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신설(9개 지역)</li> <li>· 학교·청소년 전용공간(20개소) 설치</li> <li>·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li> </ul>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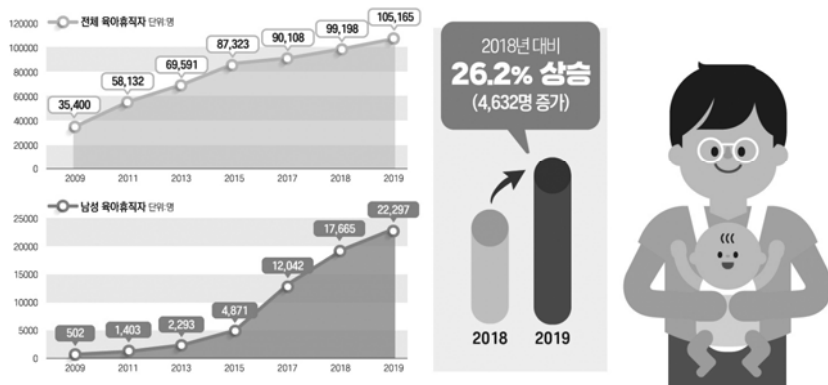
Ⅰ 믿을 수 있는 안심 돌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역 돌봄공동체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센터 신규 건립(64개소)</li> <li>·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실시(15개 시·군·구)</li> <li>·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확충(30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입소미혼모·자 임산·출산등 건강관리강화</li> <li>·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 교섭 서비스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신청 간소화</li> <li>· 야간, 주말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li> <li>·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평가 실시</li> </ul>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임.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2020.01.22.]

•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86](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86)

양성평등은 혁신과 포용, 공정사회를 위한 핵심가치

- 국무총리는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① 향후 5년간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 ②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③ ’18년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유엔 여성차별철폐

폐협약 심의권고」의 이행상황과 ④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국가성평등지수」의 2018년도 측정 결과를 점검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2.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6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64)

## 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2.0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2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27)

##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35%)으로 2016년 대비 5.6%p 감소,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으로 2016년 대비 0.6년 감소, 경력단절 경험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 해가 23.2%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2.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6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63)

##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2020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제도를 발표함. 발표 주요내용은
  - 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②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및 여성창업 지원 강화
  - ③ 임신·출산 지원 미혼모자기족 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등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7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76)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19년 2월부터 11월 중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하여 106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던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함.-적발된 경우,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조치를 통해 91명을 퇴출하였고, 17명은 퇴출 예정[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01.16.]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0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03)

###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1.09.]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9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93)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9개 시도로 확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4개소 확대할 계획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01.13.]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3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31)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모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발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1.17.]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1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17)

## [보건복지부]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020.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하고,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020.0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개정(2020.03.0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3.04.]

####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5335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53354)

###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 만 명 혜택)

-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고 발표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2.02.]

####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5264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52646)

###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2016.11월~2019.11월)에 대해 1월 13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1.16.]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39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396)

##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3.06.]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76](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76)

## [국회입법조사처]

###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 한국의 여성의원 현황과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프랑스와 독일의 남녀동수제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NARS 현안분석, 2020.01.23.]

• 참고문헌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971&cmsCd=CM0155](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971&cmsCd=CM0155)

###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청소년 부모 관련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함. [NARS 현안분석, 2020.03.05.]

• 참고문헌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7553&cmsCd=CM0155](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7553&cmsCd=CM015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고려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함. [보건·복지 Issue&Focus, 2020.01.20.]

#### • 참고문헌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74&ano=1](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74&ano=1)

## [서울연구원]

###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 서울시 온종일 돌봄 이용실태와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돌봄공급을 계획하고, 추진 전략 제언 [연구보고서, 2020.02.25.]

#### • 참고문헌 •

<https://www.si.re.kr/node/63087>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텔레그램으로 ‘윙겨간’ 디지털 성착취

-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 [연구보고서, 2020.03.09.]

#### • 참고문헌 •

<https://gfwri.kr/portfolio-items/wifi-201/?portfolioCats=15>